

# 주말 광주 도심은 ‘쓰레기 천국’

### 충장로·전남대 후문 등 무단투기 심각...충장로 하루 2.5t이나 커피컵이 절반...이색 쓰레기통 설치 등 쓰레기 줄이기 고심

### 경고 안내문에도 근절 안돼...시민의식 실종 도시 이미지 먹칠

광주 도심이 주말이면 불법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수준 이하의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대표적 변화기인 충장로 일대와 전남대학교 후문 상가지역 등은 주말이면 방문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악취 등이 발생하는 등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불법 투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단속 CCTV를 설치하고,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가하면 ‘테이크아웃용 음료컵’ 모양의 이색쓰레기통까지 배치하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지만, 시민의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적이다.

3일 광주시 동구와 북구 등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 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4년 동구 69건, 2015년 65건, 2016년 74건, 올 7월말 현재 100건을 기록하고 있다. 북구도 같은 기간 652건, 908건, 889건, 올 5월말 현재 185건이다.

동구는 올 들어 불법 투기 쓰레기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은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구도 대표적인 상가 밀집지역인 전남대 후문 등을 중심으로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충장로 일대는 매주 주말이면 2.5t 정도의 불법 투기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테이크아웃용 컵이라는 게 동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구는 불법 투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시민의식 개선을 촉구하는 홍보 현수막과 함께 단속 CCTV까지 설치하고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충장서림 앞에 놓인 테이크아웃용 음료컵 모양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지나가던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줄지 않고 있다. 동구는 고민 끝에 충장로 일대 일부 업소들과 연계해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원 5개소에 스테인레스 재질의 대형 테이크아웃 커피컵(높이 120cm·지름 65cm·용량 130ℓ)모양의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1개당 제작비만 130만원으로, 충장로에서 영업중인 일부 업체에서 부담했다.

이 쓰레기통은 테이크아웃 전용 재활용분리수거함으로, 현재 충장로 1가 입구

와 궁전제과 앞, 무등빌딩 앞, 콜박스 사거리, 총파 앞 등 충장로 1~2가 5곳에 설치돼 있다.

분리수거함에는 특히 별도표시 없이 컵 뚜껑에 해당하는 위치에 지름 30cm 크기의 구멍을 내 테이크아웃 커피를 다 마신 시민들이 재미를 느끼며 컵을 버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분리수거함 하단에는 ‘협치, 상생, 깨끗한 거리 조성’에 0000와 광주광역시 동구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도 넣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유명 커피숍 커피컵 모양을 그대로 따라한 외양에 큼지막하게 브랜드 로고까지 새겨넣은 덕분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이색적인 풍경까지 연출되고 있다.

커피컵을 빼닮은 분리수거함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주말이면 충장로 곳곳에 버려지는 테이크아웃컵 때문이다.

광주 대표 쇼핑명소로 꼽히는 충장로 1~2가에는 현재 커피숍 30여곳이 영업중인데, 주말이면 버스정류장, 길거리, 화단 등을 가리지 않고 다 마신 음료컵이 버려져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동구 환경정소과에 따르면 평일 0.7t 수준이던 재활용 쓰레기는 주말(금요일~일요일)에는 2.5t으로 3배 넘게 증중한다. 특히 주말에 수거한 재활용쓰레기 중 커피컵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대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난 4월 충장로, 구 시청 사거리, 동부경찰서 인근 등에 그물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29개를 설치했지만 테이크아웃컵 무단 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충장로 커피숍들과 연계해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구별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전용 수거함에 흥미를 느껴 무단 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조선족 근로자 옥상의 절규 “밀린 임금 달라”

### 투신 소동 벌이며 지급 촉구

### 18명 1억8000만원 못받아

### 건설사측 “조만간 해결할 것”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조선족 노동자가 경찰과 119에 구조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3일 광주동부경찰과 동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경 광주시 동구 산수동 소재 ‘무등산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신축현장 16층 옥상에서 조선족 투신 50대(50)씨가 난간에 앉아 투신소동을 벌였다. 한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밀린 임금을 빨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외치며 1시간여 동안 항의했다.

한씨는 경찰과 119구조대원 등의 설득을 받고 스스로 내려왔다.

경찰에서 한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창틀 설치 작업 등을 했으며 같이 일한 조선족 동료 17명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이날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가 투신소동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신 임금을 받지 못한 조선족 일부 대부분은 중국 내 가족들에게 생활비조차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산수동 무등산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 50(50)씨가 밀린 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동부소방 제공>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입국 비용 등으로 벌린 돈 등을 감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무등산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한 18명이 3개월간의 임금 1억8000만원을 못 받았다”며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공사 현장 소

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체불은 아니고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생긴 문제로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한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후 해당 건설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335세대 규모)는 올 12월 입주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공사 진행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교통사고로 1억8천만원 蘭 고사...누구 책임?

### 가해 운전자·보험사에 55%

### 광주지법, 7964만원 지급 판결

교통사고 때문에 차에 실렸던 고가의 한국란(韓國蘭)들이 고사했다며 보험사와 상대방 운전자에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박찬 판사는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1억원이 넘는 난이 고사하는 데 영향을 준 사고 운전자 B씨와 B씨의 보험사는 연대해 손해액의 55%인 79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와의 교통사고로 1억8960만원 상당의 난이 고사했다며 상대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 B씨,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1억896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장 낮은 가격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총 손해액을 1억4480만원으로 산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해 손해액의 55%를 지급하도록 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고가의 난을 운반하면서 허술한 거치대에 화분을 고정했고 차량 후미에 고가품을 운반한다는 표지도 없이 운행했다”며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운행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가해자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대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 아닌 차량 소유자는 운전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3년 8월 썬더페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창원 IC 인근 터널을 지나던 중 뒤따라 오던 B씨의 차량으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고가의 한국란 화분들이 거치대에 함께 넘어지면서 일부 난은 화분 밖으로 쏟아졌다.

A씨는 난을 살리기 위해 창원의 한 난실로 긴급히 옮겨졌지만, 1족당 최대 1000만원을 호가하는 9종의 난 상당수가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계곡 점령 안하무인 누드족 ‘난감하네’

### 무등산 지난달 불법 26건 적발...적반하장에 단속반 끌머리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원호사 계곡을 점령한 ‘누드족’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 불법더위가 이어지면서 장년·고령층 남성들이 무리지어 옷을 벗고 계곡 물에 몸 담그면서 탐방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일부는 ‘같이입을 속옷이 없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알몸으로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하는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에게 ‘유년시절 추

억의 장소’라는 등 각종 이유를 들이대며 되레 화를 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원 관계자는 “법적 처벌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나이 든 노인분들이라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피서철을 맞아 국립공원 특별 단속이 시작됐지만, 꿀벌견 피서와 불법 행위는 여전하다.

3일 무등산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공원 내에서 모두 2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무단출입과 흡연이 8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 채취 5건, 애원견 반입 4건, 취사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규정을 몰랐다’고 따지는 위반자와 단속반 사이에서 승강기가 다반사다. 지난 1일에는 탐방객 출입이 금지된 계곡 구간에 텐트를 쳐놓은 야영객 무리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취사·야영·올물 투기·흡연·야간 산행 등 피서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김보영 무등산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이웃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기초질서만큼은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

## 부안 숙박시설(모텔)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객포해수욕장, 해변가 5분**  
**대명리조트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2개동 룸43개)**  
**월 수익 2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매매가 10억 (용 6억 가능)**

**직매 010-7384-7800      010-6670-9800**

## 수기동 상가(매매·임대)

20층 중 6층 (45평)

**전반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5천만 투자 무료제공**  
**보 1천만, 월 70만 / 즉시 임대 가능**

**1억 6천 → 9천8백 (용 5천)**

## 영광 주택

**급매 신축**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 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1억 1천 → 9,800만원 (용 2천)**

## 대신경매

**입찰부터 ~ 명도까지**  
**건설개발, 리모델링 전문**  
(사무실) 상무지구 한국은행 맞은편

**광주 동구 금남로 2가(근린시설)**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예술품 전당, 구 도청 부근 위치 (아파트입주 상가)**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6억**

**남구 송하동(근린시설)**  
토지 138평, 건물 496평  
**(아파트입주 상가)**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8억6천**

**동구 계림동(어린이집)**  
토 109평, 건 183평  
**대단위 아파트단지**  
**감정가 5억6천 → 최저가 5억6천**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층 코너자리**  
**월세 500만**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

**여수시 중앙동(근린시설)**  
토 154평, 건 265평  
**감정가 25억 → 최저가 17억**

## 경매교육

**① 기초실전반**  
▶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③ 프리특별반**  
▶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 서구 상무지구 상무버들주공 (분양면적 24평) **감정가 1억6,300만 → 최저가 1억1천4백**
- ▶ 서구 금호동 쌍용예가 (분양면적 50평) **감정가 4억8,700만 → 최저가 3억4천**
- ▶ 광산구 산월동 첨단 호반리전시빌 (분양면적 36평) **감정가 2억9백 → 최저가 2억9백**

**010-2699-5300      062-382-5500**